

## 질주하는 아시아, 누가 달리고 누구와 달리고 어떻게 달리는가?

불어불문학과 201721656 유정현

1.

오랜 경멸과 무시, 유럽은 물론 일본을 거쳐 한국 사회에서도 사대주의의 종양으로 퍼졌던 뿌리 깊은 오리엔탈리즘, 아편전쟁 이래 동양의 신화가 무너지고 근대의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외부적으로 서구에 열등한 문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럽 귀족 사회가 그토록 탐했던 중국 도자기처럼, 아시아는 16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 넘볼 수 없는 문물을 꽃피웠던 선진 문화의 발원지였다. 과거 서유럽의 1인당 GDP는 중국 혹은 일본에 크게 뒤쳐졌고, 유럽사회의 근대화를 일으킨 화약과 같은 획기적인 발명품들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전래된 것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의 경제·군사 세력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 크게 뒤처지게 되었고, 필경에는 서구(혹은 서구를 모방한 국가)의 제국주의에 대부분의 지역이 잠식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근대의 슬픈 꺾뎀기를 꺾이고 아시아는 새로이 태동하고 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동남아의 꾸준한 성장 등 오늘날 아시아의 질주는 자기 문명을 그간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던 서구를 조금씩 변방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하다.

2.

달리는 아시아, 그러나 누가 달리는가? 유럽의 경계는, 스스로를 어떻게든 유럽으로 끼워 넣으려는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일정하다. 유럽연합의 견고한 울타리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미우건 고우건)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 속에는 문화적 동질감이 존재하고 각자 자신과 서로를 ‘유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다르다. APEC, ASEAN, EAS, RCEP... 아시아의 다양한 정치 공동체는 오히려 아시아가 통일된 정체성 없이 사분오열되어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애초에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날까지 ‘비(非)서구’라는, 그리스 시대의 케케묵은 지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한 까닭일 터이다. 그보다도 아시아 스스로 지역정체성을 고민한 경험이 없는 까닭일까? 가쁘게 교차하는 아시아의 다리들[足], 저들은 누구인가? 누구와 뛰고 있는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여러 답들이 아직 어설픈 임시 정의(定義)에 불과한 만큼, 아시아 내 공동체 관계의 끈 역시 아직 유약하기만 하다.

3.

그보다도, 아시아가 뛰는 꼴을 보라. 아시아가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운동회의 2인 3각처럼 위태롭게 절름거린다. 빠르긴 하나 결승선까지 ‘함께’ 도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장담하지 못한다. 가운데 중국은 시대를 맞춰주지 못하는 중화주의의 낡은 신을 신고 남중국해 국가들의 내키지 않는 다리들과 씨름한다. 출발점에서 정경분리원칙의 끈을 동여맨 한국과 일본의 두 다리는 어느새 찢어진 끈을 끌고 제 각자 미덥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

각국의 질주 역시 세계적인 안목에서는 한없이 불안하다. 한때 유가, 불가, 도가의 정신적 반석 위에 세워졌던 동아시아 특유의 평화로운 공동체 정신은 서구보다 더욱 서구적인, 아시아의 맹목적 자본주의에 의해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다. 자연은 물론 인간까지도 단순한 소비와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맹목은 숲에는 쓰레기를, 콘크리트 방 한 구석에는 인간을 던져 넣었다. 바야흐로 한국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붙여줄 만큼,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어버린 아파트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로 호흡하는 삶의 숨통마저 끊어버린, 급격한 경제성장의 칙칙한 그림자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경제 성장을 이룬 사회들에서, 회색 벽돌의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파른 층계에서 추락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은 아시아 사회, 특히 아직 향후 개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동남아 사회가 유념해야 할 비극적 아이러니이다.

## 結

지역정체성, 상호 관계, 그리고 발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답 내려지지 못한 채 끊임없이 혼란한 질문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그러나 질문은 답의 어머니이고, 좋은 질문은 좋은 답들을 낳는다. 이미 경제발전의 달콤함과 함께 씹쓸함을 맛본 일본 사회에서는 발전의 어두운 이면에 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내고 있다. 사토야마 플랜을 비롯하여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모색, 그리고 이 고민들에 서투나마 혁신적인 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에게도 퍼져나간다. 중국의 급부상에 의해 아시아 세력구조에 큰 혼돈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 사이에서도 CMIM 이니셔티브와 같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는 서구의 편견과는 달리, 정체된 적이 없고 지금도 정체되지 않는다. 현대의 격변기에 서서 아시아는 스스로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이 서구가 임의로 부여한 조잡한 지역 개념, 한계가 극명한 서구적 자본주의, 전통가치가 해체되고 도래한 현대의 혼란, 이 모든 낡은 껍데기들을 극복하고 아시아가 나아갈 가능성의 길인 까닭이다.